목회자 칼럼

떠나는 자의 마음

김성식 목사

이 글을 쓰고 있는 이곳에서 제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숲과 그 위로 파란 하늘뿐입니다. 일본 후지산 아래, 사람 사는 첫 동네랍니다. 하나님께서 14년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던 조남수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일본으로 보내시고 가와사키에서 한 작은 교회를 개척케 하셨습니다. 선교와 구제에 힘쓰던 주님의교회도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교단을 초월하여 조 목사님의 일본 선교 활동을 여러 해 동안 조용히 지원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수 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이젠 주일 출석 150여 명에 이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2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는데 1부는 오전에 일본어로, 2부는 오후에 한국어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인 교우가 80~90명, 한국인 교우가 60여 명 출석한다고 합니다.

저는 조 목사님이 한국에서 1980년 무렵에 개척한 교회의 신자였습니다. 그때는 집사였던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 일본의 초대 그리스도 교회의 여름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창 밖에서 수련회(100여 명 참석)를 마치고 돌아가는 일본인 교우들의 인사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이사야 선지자의 소망 어린 예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저는 수련회 기간 동안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가사 밑에 일본어로 발음을 표시해 한국어로 찬양을 하는 모습은 저에겐 전혀 예기치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칼이 변하여 보습이 되는 모습이었고, 창이 변하여 낫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코 친해지기 쉽지 않은 두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녹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편협한 민족주의를 초월해 가고 있는 모습은 한국과 일본의 미래에 대한 하나의 비전 그 자체였습니다.

초대 그리스도 교회는 1994년에 예배당을 지어 헌당했는데, 올해엔 후지산 자락에 수양관 토지를 헌당했습니다. 그리고 수양관 뜰에 납골당을 마련했습니다. 일본에선 10여 명의 유골을 안치하는데 약 1000만엔(약 1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겐 큰 비용입니다. 특히 집이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 가운데 하나가 자신들의 유골을 안치할 곳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 교우들이 만장일치로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이 교회의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유골을 받아 주기로 한 것은 일본에선 엄청난 사건이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본에서 일으키시는 은혜의 물결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영향인지 교회 전체에 활기와 생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행 13장)가 민족주의를 초월해서 '모인 교회'였기에 성령님께서 안디옥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의 장을 열어가신 것처럼, 민족주의를 초월한 초대 그리스도 교회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많은 기대를 갖게 됩니다. 주님의교회의 조용한 지원이 이렇게 소리없이 열매를 맺어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교회는 그저 재정적 후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마 13:31~32). 저는 주님의교회가 지금까지 심어온 선교와 구제의 열매들이 언젠가는 풍성한 열매로 드러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의교회가 교단을 초월하고 조남수 목사님이 민족주의를 초월했기에 맺혀진 열매를 기억하시며 나를 에워싸고 가두고 있는 담을 뛰어 넘는 주님의교회 교우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최근 저에게 작년 가을 이전에는 꿈도 꿔본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뉴저지 주에 위치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비록 1년여의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알고 공부하러 가기로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중도에 교회를 사임하기에 제가 담당하고 있던 5교구 식구들에게 그렇게 죄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좌우로 온통 죄송한 일 뿐이지만 이 길이 장차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길이라고 믿어졌기에 사임을 결단하였습니다.

(3면에 계속)

함즐 함율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제26호 (격월간)
발행일 2000년 9월
발행처 주님의교회 출판부

주님의교회

(138-220)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교내)
주님의교회
T. 416-5181~2 F. 416-5180
인터넷 ID : http://www. Lord-church. or. kr

CONTENTS

1
떠나는 자의 마음 / 김성식 목사
2
교회다움을 위해 / 권헌일 협동장로
3
네티즌이 되어 살아가는 나날들 / 노수연 집사
4~7
특집 / 2000 여름수련회를 마치고
8~9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인가 / 이병식 협동장로
10
성전 청소 / 이민자 집사
11
안타까운 이산가족 / 최상용 안수집사
신앙클리닉
교회예절
12
시 / 허형철 성도
기도문 / 이민우 집사
성경퍼즐

시론

교회다움을 위해

권헌일 협동장로(69구역)

국민의 20% 이상이 한 종교를 믿으면 그 종교는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게 된다는 어느 사회학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의 크리스찬(개신교, 천주교)은 벌써 인구의 25%를 넘었다고 합니다. 통계 숫자에 의하면 희망이 있는 나라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현대의 젊은 지성인들 중에는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나가기 싫다"고 하는 탈교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90년대에 들어서부터 교회 성장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 원인이야 어떻든 오늘의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로부터 외면과 불신을 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 중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기에 다른 교회로 옮겨 다닐까 해도 그 교회도 가까이 가보면 별 다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그대로 나가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고 있는데 그때 마음이 오히려 평안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아다녔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다운 교회의 신자다운 신자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회를 바로 알지 못할 때 교회답지 못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생길 것입니다. 교회는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바로 알자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라는 해답을 찾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탄생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 했을 때에 그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을 체험한 이들이 교회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위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꾸려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성장을 인위적 수단으로, 인간의 노력만으로 하려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근자에는 대를 이어 세습하듯이 담임 목회자를 세습으로 전제 군주식 같은 양상이, 큰 교회에서 유행병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를 갖게 합니다. 한 교회는 대를 이어 아들이 담임 목회자가 되는 것이 그 교회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변명해서 교회가 재벌 기업처럼 되어 버렸나 하는 의구심을 일으킵니다.

둘째,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 조직과 행정을 맡아 하고 있으나 궁극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주인이 되신다면 또 그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오늘의 한국 교회는 참 주인인 그리스도를 교회 밖으로 내쫓아 버렸거나 교회 한쪽 구석으로 몰아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 주장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늘 섬기는 정신으로 행하는 것 뿐입니다. 진정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 높여질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셋째, 교회의 모든 기구와 봉사자들은 다 같이 지체라는 것을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일 때 교회다워집니다. 그리스도는 몸이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유기적인 생명체는 지체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과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 기능에 따라 그 일을 맡은 것이기에 서로 존경하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착각한 나머지 섬기라고 맡겨준 종의 자리를 군림의 자리로 만들고 있으며 교권을 이용하여 종교업자로 전락해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나 자신의 지체됨을 잊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나의 지체 됨을 분명히 할 때 서로 존경하게 되고 서로 돕게 되고 교회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모이면 앞에서 생각한 문제를 염려하고 그 잘못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항상 타인에게 있음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가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고 한 요나의 회개처럼,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나 자신부터 내 자리 내 위치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 힘들고 신자다운 신자를 찾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매일 개혁해가고 신자다운 신자로 살도록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 나의 모나고 비뚤어진 모습을 온전하게 고쳐 주시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야 하겠습니다.

섬김의 삶

네티즌이 되어 살아가는 나날들

노수연 집사(53구역)

저는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를 배울 때 같이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다 장성하였고 저도 이제는 실력이 많이 늘어, 홈페이지를 만들고 관리하기도 하며, 한편은 사람에게 지식을 나누어 주게도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교회 인터넷부에서 일하게 되어 교회 홈페이지도 제작하고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비교적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는 제겐 여러 부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과는 전문적인 지식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가족적인 정을 주고 받기도 하지요. 그들은 저의 친구이자, 우리 가족 전체의 벗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작업을 맡게 되자, 지금까지는 별로 접해보지 않았던 프로그램이나 기술들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는 많은 과정이 있기에 서로의 전문 분야를 상호 협조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에는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평소에 친분이 있던 인터넷 친구가 선뜻 나서서 부족한 면을 도와주고, 밤이 늦도록 온라인상에서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이 계속되며, 새 홈페이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많은 순조롭게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서버에 문제가 있어, 여러 차례 다운이 되면서 방명록이 날아가 버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전문가를 동원해도 없어진 게시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되어, 새 게시판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자꾸 에러가 나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방면에 다시 SOS를 칠 수밖에 없었는데, 연락을 받은 그 청년은 자기 일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저와 온라인으로 연결한 채로 새벽 4시까지 작업을 같이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훤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에야 게시판이 정돈되기 시작했고, 그때의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비로소 그 젊은이가 하나님께서 저와의 친분관계를 통해 인터넷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의 기도에 있듯이 우리는 어디서나 몽당연필이 되어서 제 곁으로 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들이 그리했듯이 저도 어디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가서 도와야 하리라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보잘 것 없는 기술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어디든 목마른 우물가의 그릇으로 써 주시옵소서.'

요즘은 70이 넘으신 저희 어머니도 가끔 컴퓨터를 배우러 오십니다.

병원 원목실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어머님은 아버님의 병환으로 그 일을 중단하시고 외출하시기가 어려워지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소망은 집에서 인터넷 상담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컴퓨터로 글을 올리시고 답변하고 수정하는 법 등을 익히십니다. 신앙심이 깊고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하얀 머리를 하시고, 가정에서 인터넷을 연결하여, 어려운 사람들의 상담을 맡아주시면 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래 글은 어머니께서 배우시며 쓰신 글입니다.

겉 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바라보며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기에 오늘도 안경을 끼고 떨리는 손으로 워드를 칩니다. 끊임없이 개척하며 도전하여 꼭 필요한 일꾼 되기를 바라며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되어 보기만 해도 편안함과 사랑을 주는 참신한 인간이 되겠습니다.

딸에게 배움을 감사하시며 적어 놓으신 이 글을 보고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인터넷 세상 속에도 어머니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뜻한 사랑을 지닌 많은 분들이 컴퓨터 모니터 속을 밝히시어 앞날을 주도해 주시기를 참으로 부탁드립니다.

(1면에서 계속)

이런 결단을 하며 선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아일랜드의 선교사들 이야기가 기억났습니다. 이들은 선교 여행을 떠나며 돛만 달고 고향의 항구를 출발했다고 합니다. 돛만 달았기에 배엔 노와 키가 없었습니다. 한 달 정도를 버틸 수 있는 물과 식량만 실었습니다. 배의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고 떠난 그들이었기에 배가 닿는 곳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선교지로 생각하고 선교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표류하며 땅에 닿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의교회를 사임하며 아일랜드의 선교사 이야기가 기억 나는 이유는 아마도 제 앞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딘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사역이 있음을 믿기에 저에겐 마치 둥지 같은 주님의교회를 떠납니다.

이제까지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기에 떠날 뿐입니다.

바다에서 표류하는 돛만 단 배가 되지 않도록 혹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교회 교우들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수련회를 다녀와서

공유진(소년부)

소망이신 예수님을 주제로 한 2박3일간의 수련회를 다녀왔다.

수련회에서는 많은 재미있는 활동을 했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모닥불 축제, 천로 역정, 성경 야구 게임 세 가지이다. 수련회 첫날 모닥불 축제에서는 camp fire를 하면서 식빵을 잘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활동도 했다. 식빵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양보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나누어 주는 양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련회 둘째날 천로역정에서는 조별로 십자가를 지고 그 동안 상상만 했던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 알 수 있었고, 장애 체험을 하고 나서는 장애인들을 조금이나마 도와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수련회 마지막날 성경 야구 게임에서는 성경 퀴즈를 풀어 야구 경기처럼 점수를 매겼는데도 매우 재미 있었고 성경 상식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즐거운 수련회 활동을 하면서도 불평을 했던 것이 있는데 수련회 장소였던 군부대의 식사에 대한 불평이 그것이었다. 먹을 음식이 없어 굶는 아이들도 있는데 식사에 대해 불평을 한 것이 부끄러웠다.

이번 수련회는 교회 친구들과 많이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 이번 수련회는 내가 예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나는 앞으로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

조민아(중등부)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수련회, 그런 수련회이기에 내 시야를 가리는 어둠을 벗어나 주님께 달려가고 싶었고, 중등부에서의 의무감도 있어서 이 수련회를 갔다 오게 되었다.

오랜 만에 보는 반가운 친구들도 많았고 가슴이 아늑해지는 평화롭고도 소박한 풍경이 한 눈에 들어왔다. 마음이 맑아지는 푸르름 때문일까. 4시간 동안 쌓인 버스에서의 피로가 풀리는 듯 했다. 산이라서 그런지 숙소와 운동장, 강당 사이사이의 거리가 제법 길어 힘들었지만, 그 거리 동안에 조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풍경도 바라보니 기분은 좋았다. 내가 묵었던 3학년 여학생들 방은 위치도 안좋았고, 장마철이 지난 바로 다음이라서 방에서 나는 냄새도 좋지 않은 데다가 이불, 베개도 눅눅해서 숙소에선 그리 편하게 지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강당이나 밖에서 더 많이 지냈기 때문에 수련회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

이번 수련회에서 정말 좋았던 것은 조별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서 친교를 맺을 수 있었던 점이다. 프로그램에 대해 의논하고, 게다가 우리 조는 여자뿐이라 힘든 점도 더러 있었지만 그때문인지 다른 조에 비해 단결도 잘 되고 서로의 신뢰도 높았다. 난 조장이라서 힘든 점은 많았지만 이것도 나의 일이고 주님 뜻이라는 생각을 하며 즐겁게 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경건한 마음에 고개가 숙여지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가 살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았다. 평소에는 늘 같을 고집한 내가 부끄러워 반성하는 시간들이었다. 내가 여태까지 지은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주셨다는 걸 다시 느끼는 순간이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번 수련회에 비해 주님을 더욱더 배울 수 있는 성경공부 시간이 적어서 주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의 폭이 좁았던 점이다. 또 주님께 드리는 찬송의 시간 또한 진정으로 드린 것 같지 않아서 아쉬웠다.

그렇지만 정말 뜻깊고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성찬식이 아닌 애찬식이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고 따스함을 느꼈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기쁨이었고, 행복이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눌수록 커지고 기쁨도 행복도 두 배가 된다고 배웠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랑을 나눈 적이 몇 번이나 될까?

이번 수련회는 소망이신·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서로 베푸는 법을 배운 것 같다. 중등부에서 가는 마지막 수련회였고, 하나님의 폭넓은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었기에 내 가슴 한 켠에서 하나의 소중하면서도 밝은 등불로 자리잡아 소외되고 어두운 곳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다짐해본다.

디아코니아 수련회를 마치고

고등부

사랑이 없어서 버려진 사람들이 사는 곳, 음성 꽃동네에서 디아코니아 수련회를 마친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쓴 편지' 중 일부입니다.

■ Dear my God!

하나님! 저 아시죠? 요즘 저는 친구들처럼 화려하고, 돈 많은 생활 하도록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밉기도 했었어요. 그런데요, 이 꽃동네에 와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멀쩡한 몸을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 배운 것,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입니다'라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 하나님 아버지! 저는 뇌성마비나 불구가 된 사람들을 볼 때면 왠지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동에서의 봉사는 진짜로 힘들었습니다. 밀레니엄(?) 아저씨와의 화장실 청소는 거의 죽음이었습니다. 변기에 손을 넣었고, 화장실 바닥 전체를 솔로 밀었을 때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꽃과 나무를 함께 심었던 하반신이 마비된 아저씨가 한 손으로 힘겹게 흙을 모아서 화분에 넣으시는 것을 볼 때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아무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친구를 따라 이 수련회에 참석한 ○○○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은 어렸을 적 영화나 만화를 보고 흉내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따라 오게 된 이 수련회를 통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저보다 더 건강한 웃음을 가지고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분들과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행복하게 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병동에 누워계신 분들을 보면서 다가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주를 아낌없이 발휘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내세우는 그분들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나님! 3일 동안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를 믿고, 돕고, 다가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이분들과의 만남, 꽃동네에서의 짧은 추억을 영원히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한시도 한눈 팔지 마시고 그분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주님! 처음으로 제가 늘 꺼려하던 일, TV에서만 보던 장애인을 돕는 힘든 일을 했습니다. TV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밥 먹여주고, 몸을 씻겨드리는 일을 보면서, 도와주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난 절대로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일들은 나와 똑같은 사람들의 몫이고, 장애인들은 바로 너, 나 따질 것 없이 같은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는 절대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불쌍한 분들이라는 생각도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을 씻겨주고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그분들의 생활은 다만 우리와 조금 다를 수 있을 뿐, 항상 행복한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커다란 포부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 그분들과 같이 희망을 가지고 항상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하나님! 가지고 있는 자는 베풀 줄 알아야 하는데, 저는 스스로를 꽁꽁 묶어놓기만 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인생에 최선을 다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데… 정말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꽃동네 식구들을 도와드리면서 너무 힘들 때 부모님은 나를 돌보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항상 회개하며 다짐하여도 다시 되돌아가는 자신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지. 이제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제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GOD LOVES YOU, AND OFFERS A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이수암(청년부)

God loves you, and offers a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정말 이번 OUTREACH에선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내가 전도하던 사람들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나의 탄생 이전부터 나의 죽음, 또 그 이후까지 모두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선다.

그 언제부터일까, 나를 태국에 보내시려고, 나를 쓰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국에 갈 때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어느새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지. 태국에 가서도 그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통해 오히려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OUTREACH에서는 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큰 사건이 세 가지 있었다.

① 나를 통하여 준비된 영혼 두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옴.
② 자신의 약한 부분을 자랑함에 있어서 오는 자유함.
③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

이것들이다.

1. 이번 OUTREACH에서 근 100명의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중 2명. 겨우 이만한 숫자로 뭘 그러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아끼시고 무엇보다 소중한 영혼들 중에서 나를 통해 2명의 영혼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은 나에게 있어선 감동이었고 충격이었다. 사실 그 동안 전도도 몇 번 해보았지만, 항상 꽁무니를 빼기 일쑤였고 당연히 영접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내 부족함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두 사람의 준비된 영혼들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그 두 사람이 좋은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로 성장하길 기도한다. 할렐루야!

2. 자신의 약한 부분을 바라보고, 자신이 그 동안 숨겨왔던 아픔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말 안 해도 다 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래야만 하는 시간이 찾아왔다. 그 사실들(자신도 몰랐을지 모른다) 말할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아픔, 슬픔, 외로움… 너무나 놀랐다. 사람들 마음 속에 그토록 크나큰 상처가 있었고 그것들이 우리들을 누르고 있었다는 것을.

나의 차례.

사실 맨 처음엔 그냥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들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어느덧 이야기하다 보니 음란함과 거짓과 비웃음(자조), 나조차도 깨닫지 못하던 나의 약점이 드러나게 되었고, 정말 내가 영적 육적으로 많이 눌려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말하고 나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이상한 일도 몇 가지 체험했다. 하지만 이젠 자유롭다. 하나님께서 깨끗케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물론 내 자신은 악한 인간이고, 나도 모르는 새에 죄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젠 그런 죄와 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동역자들과 그 아픔을 나누며 신실하고 준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기도한다. 진심으로.

3. 그 간증 이후 장로님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즉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영접기도를 다시 했다. 그동안 나의 교만했던 20년간의 삶을 내려놓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이와 같던 신앙이 그제서야 견고히 세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예수님은 계속 나의 마음 속에서 내가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그날만을 기다리셨을 것이다. 아마 같은 그 표정 변하지도 않으셨다. 잠시 후 나의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과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이 그 해변의 나를 동들의 마음에 전해졌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다.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에게로 과감히 전환한다

한득현 집사(46구역)

어릴 적 수학여행 갈 때와 같은 설레임 속에 버스에 올랐다. 가을이 문턱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작열하는 태양을 머리에 안은 채 우리가 탄 버스는 시원한 강바람을 가르며 신나게 달렸다. 차창 너머로 과수원의 배가 하얀 봉지를 뒤집어 쓴 채 따가운 태양과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고 탐스런 포도가 마지막 수확을 기다리니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아름다웠다.

어느덧 우리는 천 년이나 되는 듯싶은 아름드리 소나무 숲을 지나 그 유명한 광릉수목원 입구에 도착했다. 벌써 다 왔구나 싶더니(나는 처음 이번 수련회 장소가 이곳인줄 알았다) 버스는 수목원을 지나 5분 가량 더 올라가 산중턱에 작은 십자가가 보이는 현대식 건물, 광릉하우스 세미나하우스에 여장을 풀었다. 서늘한 밤 배웅을 받고 이어서 여는 예배를 드리고자 실내에 모이니 이번 수련회 참석인원 400여 명을 수용하기에는 수련원의 규모가 다소 협소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은혜를 받겠다는 성도들의 열기는 장소의 크기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수련회 일정표를 보니 다소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구나 했지만 막상 여는 예배를 필두로 매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니 바쁘게 움직여야 했다. 더구나 조장을 맡은 나로서는 세 번의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친교활동을 하다 보니 정신없이 2박3일을 보내게 되었다.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번 수련회는 나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더해주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의 기회로 삼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주님은 나의 영혼의 갈급함을 알고 계셨는지 첫시간 집회부터 나의 메마른 영혼 위에 단비보다 강한 소낙비를 쏟아주시기 시작하셨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나오고 내 영혼은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나는 2년 전 IMF로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하고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찌나 어렵고 마음이 무거운지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마음의 불안은 좇지지 않았다. 이런 때에 이번 수련회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아니 드릴 수 없었다.

하나님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의 참의미를 깨닫게 해주셨고, 아울러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다. 참평안은 성령을 받아 욕심을 버릴 때 누릴 수 있음을 배웠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삶의 현장에서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다. 이 주제에 걸맞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이 물음에 해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수련회의 큰 수확이었다.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대한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 역할이나 삶의 현장에서의 우리의 역할은 그 무게와 중요도가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활현장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주저함 없이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수련회를 통한 또 하나의 수확은 청소년에 대한 우리의 의식 전환이었다. 소년부 교사인 나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오늘날 방향을 잃고 있는 청소년들, 이들은 지금 사고의 전환과 세대 변화의 와중에 있다. 이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해도 어쨌든 이들은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청소년 교사인 나로서는 청소년들이 깊이 병들어 어찌 할 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현실만 탓하고 있고 청소년들에 대한 아무런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없어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교회 교우들의 높은 신앙 수준과 인격을 배우게 되었다. 다소 협소한 집단교육장이었지만 통제와 질서가 유지되고 그 모임에 참여한 교우들의 질서 의식, 뜨거운 수양 열기, 진지한 토론 자세 등 모두가 수준급이었다. 또한 진정한 봉사를 하는 주님의교회 교인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최상의 서비스였기에 정말 주님의교회 교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박 3일의 수련 일정을 마감하면서 수련장을 떠나는 것이 매우 아쉬웠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영적 무장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흐뭇하였다. 이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사탄이 주는 끊임 없는 욕심, 두려움, 나태함을 과감히 버리고 어느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또한 증인된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한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어 주님의 증인된 삶을 꼭 살아가도록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수련회를 다녀와서

안종실 집사(22구역)

드디어 기도로 준비하던 수련회날이 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우리 부부는 이미 짐을 꾸려 놓고 교회로 향했다. 외가에서 수련회 장소로 직접 가는 것이 가까웠지만 우리는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며 같이 가기 위하여 교회에서 준비한 차량을 이용하였다. 광릉수목원과 가까이 위치한 수련회 장소는 산과 숲에 둘러 싸여 있어서 조용하고 공기가 맑고 신선하였다. 그리고 숙소도 아주 깨끗하였다.

첫째 날 일정중 조별로 모여 하는 공동체 훈련은 서로 다른 개인들의 의견을 좁혀 가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만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남을 위한 희생정신도 요구되었다. 조장인 나는 섬김의 부족으로 훈련을 마치는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여 다시 모이는 장소에 뒤늦게 도착하였다. 그런데도 불평 한 마디 없는 조원들의 마음이 참으로 고마웠다.

세 번의 성경공부를 통해서 조원들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 연약한 부분을 감싸주며 함께 아파하게 되었다. 마지막 성경공부 시간에는 서로 손을 잡았고 찬양을 했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듯하였다. 그 어떤 모임에서 이보다 더 진실함이 나타나겠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릴 뿐이다.

연합성가대의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된 저녁 집회에서는 열정적이며 지칠 줄 모르시는 체력으로 간단명료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유익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젓가락과 끈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공부하는 일, 예수 믿는 일, 모든 일들이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특히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세상과 한 편 먹어 하면 안된다'고 하신 표현은 깊이 새길 말씀이었다.

둘째 날 전날 일정이 밤 11시에 끝나 피곤하실텐데도 아침 일찍 시작한 일출맞이 시간에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나오셔서 밝은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였다.

시원한 갈비탕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자녀 교육에 관하여 이성오 교수님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교수님은 우리 부모들의 관심을 바로 이해하고 강의의 분위기를 사로잡아 나아가셨다. 우리들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보게 하셨다. 또한 우리 부모들의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함도 깨달았다.

밤에 열린 Candle Fire에서는 장로님들이 주신 빵을 조금씩 떼어 서로의 입에 넣어 드리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세요"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동역자들임을 깨닫는 동시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시간이었다.

셋째 날 성경퀴즈 시간에 모두들 어찌나 열심이었던지 전날(?)까지 해가시며… 이 무른 보기가 좋았다. 오후 1시, 2박3일의 일정을 마치고 우리 모두는 헤어짐의 아쉬움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그곳을 떠났다.

이번 수련회는 어느 해보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사고 없이 질서 정연하고 자연스럽게 지내며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경험하고 교제했던 귀한 시간들이었다. 이제 이 은혜를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고 다짐하여 본다.

그리고 수련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내년 수련회는 손꼽아 기다리며….

기고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인가

이병식 협동장로(29구역)

1.

1859년 Charles Darwin이 발표한 소위 '종의 기원' 만큼 기독교계를 황폐화시킨 사건도 없을 것이다. 당시 인본주의자, 공산주의자, 무신론자, 제국주의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진화론의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대다수 일반인들은 물론 기독교인들조차 너무나 오랫동안 진화론에 세뇌되어 성경 따로 과학(진화론) 따로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에 진화론이 잘못되었음과 창조론의 정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노아의 홍수가 과연 성경에만 기술된 한갓 신화인가? 또는 전 지구적인 엄연한 역사적 대격변이었던가?"를 차분히 생각해 보자.

인간의 잘못된 이성주의에 밀려나 노아의 홍수가 한갓 성경적 신화로 격하되거나 혹은 우리 과학 지식의 범위 내에서 수정되고 왜곡된다면 성경 전체가 수정되고 왜곡될 수 있다.

노아의 홍수는 인간의 역사와 자연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잘 드러낼 뿐 아니라 장차 임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적 경고가 된다. 노아 시대 하나님의 경고와 노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다 멸망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심판의 날에 대비해 방주를 만들고 피신했던 노아의 여덟 식구는 구원을 받았다.

지금도 노아 시대와 상황이 너무나 같다. 믿고 준비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2. 노아 홍수의 성서적 증거

창 6:17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눅 17:26~30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벧후 3:3~7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되었으되…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3. 노아 홍수의 연대

가. 하나님의 경고 : 홍수가 일어나기 120년 전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창 6:3)"

나. 홍수 시작 : 나이 600세 2월 17일 *강수 기간: 40주야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뭄 : 150일째 *물이 감한 기간 : 166일째 1월 1일 *땅이 마른 기간 : 57일간

다. 모든 동식물을 다 실을 수 있었는가? : 현재 약 17,600종의 동물이 있음(17,600×2 = 약 35,200마리). 이들을 어미 양으로 환산하면 125,280마리를 실을 수 있다.

라. 방주의 성능 : 성경대로 전함 Oregon호를 만들어 실험한 결과 큰 파도에도 빨리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만큼 높은 안정도를 가졌다고 함.

마. 어떻게 이들을 다 관리할 수 있었을까? : 모든 동물은 공기가 탁하거나 기온이 떨어지고 빛이 줄면 본능적으로 동면을 한다.

4. 홍수의 상황과 그 영향

창 7:11~12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 궁창 위의 물이 창들의 열림으로 인하여 40주야 비의 원인이 되었다.

지금은 없는 이 궁창 위의 물이 그 당시 기후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가. 유해한 태양의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함.

나. 저주파 열선을 흡수, 산란, 재반사시켜 27℃ 정도의 아열대의 지구 온실을 형성.

다. 성경적 근거 :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창 2:6)." 바람은 기압차에서, 기압차는 온도차에서 발생한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 왔다 함은 지구상에 온도차가 없어 큰 바람이 없는 온실과 같았다는 뜻이다.

라. 홍수와 사람의 수명과의 관계 : 홍수 이전 사람의 수명은 거의 900세 이상이었다. - 아담(930세), 셋(912세), 므두셀라(969세), 노아(950세).

홍수로 궁창 위의 물이 없어져 온실이 파괴된 후 사람의 수명은 급속히 짧아진다. - 아르박삿(438세), 아브라함(175세), 이삭(180세), 모세(120세), 다윗(70세).

마. 홍수가 생태계에 미친 변화 : 홍수 이전 인간인 네안델타르인, 크로마뇽인의 머리가 우리보다 크며 당시에 네피림이란 거인이 있었다(창 6:4). 공룡 같은 거대한 동물도 있었다. 공룡과 동시에 사람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사람의 발자국 길이는 38㎝이었다. 홍수 후 처음으로 바람이 일어나고 사람의 수명은 짧아졌으며 공룡같은 짐승은 사라지게 되었다. 창세기 8장 22절은 궁창 위의 물이 없어진 홍수 이후의 절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바. 어떻게 하늘의 창들이 열렸을까? : 창세기에 의하면 하늘의 창들이 열리기 전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 이는 지하수가 터지고 화산이 폭발하는 엄청난 지각변동을 의미한다. 하늘로 분출된 엄청난 사진(沙塵)으로 인하여 궁창 위의 물이 응축되어 강수가 시작되었다.

40일간의 강수로는 모든 산들을 덮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비에 의해 생긴 홍수라면 방주는 유프라데스강을 따라 페르시아만으로 빠져가야 한다. 그러나 방주는 북쪽으로 거슬러 아라랏산에 도착했다. 이 두 문제의 해결점은 큰 깊음의 샘이 터져 바다 속의 화산이 폭발하고 큰 해일이 일어나 육지는 가라앉고 바다는 솟아오르는 지각변동이 일어나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육지에 넘쳤음을 의미한다.

시편 104편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사. 바다가 육지를 덮은 그 밖의 증거 : 새 물이 유입되지 않는 호수는 염해가 된다고 생각했으나 호수는 아무리 오래 되어도 짜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터키의 해발 1,700m에 있는 반 염호, 이스라엘의 사해, 이란의 해발 1,470m 산에 있는 23%의 염호, 해발 3,800m 안데스 산맥의 티티카카 염호, 몽골 지방의 수많은 염호들.

이 모든 것은 진화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노아 홍수의 분명한 증거들이다.

5. 그 외 홍수의 증거들

노아 홍수는 후손에 전승되어 세계에 250여 설화로 남아 있다. 이것은 노아 홍수가 국지적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다는 증거다. 바벨탑이나 소돔, 고모라 사건은 전 세계에 설화로 남아 있지 않다. 주전 627년 길가메쉬 평판에 기록된 홍수 이야기, 중국의 전설에 의하면 중국인은 홍수를 극복하여 이름을 떨친 옛 선조 '누와'의 자손이라고 한다.

'노아와 누와' 그 유사성은 무엇을 의미할까? 배선 船자는 배주 舟 + 여덟팔 八 + 입구 口로 구성되어 있다. 노아의 여덟 식구가 큰 배에 탔다.

Michigan 지방에서 발견된 오래된 석판 중에는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다.

① 부분 : 일그러진 태양 아래 한 노인이 경배하는 모습(궁창을 통해 보는 해는 일그러진다).

② 부분 : 큰 비가 내리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

③ 부분 : 물에 떠있는 배, 20칸으로 된 도형이 좌우 2개(40일), 나뭇잎을 물고 있는 새.

④ 부분 : 둥근 태양과 함께 배에서 동물들이 쌍쌍이 내리고 네 사람의 남자가 환호하는 모습.

⑤ 부분 : 무지개 .

6. 아라랏산에 도착한 방주

가. 방주는 아라랏산에 도착했다 : 2,100m 근방에서 소금덩이가 발견되고 4,200m 근방에서는 베개 모양의 용암이 발견되는데 이는 물 속에서 분출된 용암이 급격히 식을 때 생기는 현상으로 홍수 때 화산의 폭발이 있었음과 아라랏산도 물에 잠겼음을 증명한다.

나. 1856년 이후 200여 명이 아라랏산에서 묻혀 있는 방주를 23회 이상이나 발견했다. 1883년 Chicago Tribune지는 터키 정부가 방주를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955년 나바라는 방주를 발견한 바 그 잔해는 유프라테스 평원에서만 나는 나무이다.

7. 홍수의 끝

온 지구를 덮었던 물은 어디로 갔을까? 창 8:1 "바람으로 땅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감하였다." 이는 물의 증발 현상을 말하며 그외 급격한 온도의 강하로 극지에 형성된 방대한 빙하가 물의 감소에 기여했다. 계속된 지각의 대이동과 지각 균형의 조정 현상에 의해 바다는 깊어지고 대륙은 융기되어 물을 흡수하게 되었다.

히말라야, 알프스, 안데스 산맥 등은 융기로 인한 조산운동의 결과이다. Everest산 정상에는 물고기 뼈와 조개 등이 발견되는데 이는 홍수때 물에 덮였던 산이 융기로 인하여 높아졌음을 나타낸다.

8. 노아의 홍수 이후

지구를 덮고 있는 대부분의 암석이 퇴적암이란 사실은 전 세계적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물이 육지에 창일하여 엄청난 양의 침전물과 함께 유기체의 잔해가 침전물 속에 파묻혀 압석화 될 때 이 유기체는 화석화되었다. 진화론에 의하면 퇴적암은 장구한 세월(40~60억년)에 걸쳐 형성되었다고 한다. 지층이 30㎝ 쌓이는 데 5,000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면 3㎝ 두께의 물고기 화석이 형성되는데 500년이 걸린다. 그 동안에 물고기는 썩지 않을까? 그러나 1980년 5월 18일 St. Helens 화산 폭발은 퇴적암이 한 달이란 짧은 시간에도 형성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화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현대 과학은 설명하지 못한다. 노아 홍수가 분명히 말을 한다. 현 인구증가율의 1/4인 0.5%로도 노아의 식구가 지금의 인구로 늘어나는 데 4000년이면 충분하다. 금년 Geographic 7월호는 7,500년 전에 터키 지방에 큰 홍수가 있었는데 이는 노아의 홍수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진화론의 기본 가정은 현재 관찰되는 현상으로부터 과거의 모든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당장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있지만 연구하면 할수록 모순점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있다.

Darwin은 생명을 아주 간단한 조직으로 생각했으나 D.N.A.가 발견된 후에는 생명은 도저히 시간과 우연에 의하여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다.

조그만 세포 하나 속에도 1,000페이지 책으로 820권에 기록해야만 하는 방대한 양의 유전 정보가 있는데 어떻게 설계자와 제조자(창조주 하나님)가 없이 우연히 생길 수 있단 말인가? 진화론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다. 그러나 유치한 가설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 제물로 죽게까지 하신 후 부활하게 하셨다. 그 아들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권고하고 계신다.

홍수 때 구원의 방주를 거부한 사람들이 다 죽었듯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용서를 끝까지(죽을 때)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는 없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기고

성전 청소

이민자 집사(70구역)

남편과 같이 교회에 도착해 보니 이미 청소는 시작되어 있었다. 여기 저기서 부지런한 몸놀림들이 본당에 가득했다. 여자 성도님들은 의자에 걸레질을 하고 있으며 남자성도 몇 분은 진공청소기를 등에 지고 청소하고, 그 뒤를 따라 대걸레질을 하는 남자 분들도 많다. 강단 앞쪽에서는 커다란 진공청소기의 모터 소리와 웃음 소리, 이야기 소리로 성전 안이 떠들썩하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둘러보고 서 있자, 먼저 온 우리 구역 조 집사님이 멀리 강단 앞쪽에 있는 의자에서부터 걸레질을 하면서 올라오다가 나를 보고 뒤에서부터 걸레질을 하면서 내려오라고 신호를 보냈다. 나는 얼른 강단 앞에 있는 걸레를 가져다가 의자와 성경 받침대를 닦았다. 허리가 조금 아프고 얼굴에는 땀이 맺혔다.

진공청소기를 등에 멘 한 남자 성도님의 얼굴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것을 보자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수고한 분들이 있어 내가 쾌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어디 청소하는 분들께만 감사한 것일까. 돌아보면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고 하는 일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새벽부터 나와서 모두 기쁘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여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므로, 예배가 차질 없이 드려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모든 분들께도 오늘은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었다.

어제 저녁 금요일 구역예배에서 구역장님이, 이번 토요일의 성전 청소는 우리 교구 담당인데 이번엔 오후 7시부터 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평소에 할 수 있는 대로 깨끗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며, 모든 성도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은 보람 있는 일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난 번 우리 구역 성전 청소 담당 때는 구역 집사님 한 분이 미국으로 출장을 갔었는데, 청소하는 시간에 맞춰 돌아와서 청소에 참여했다는 말을 듣고 그 열의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나는 평소의 생각대로 참여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그동안 성전 청소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했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일이 끝나고 한 시간 가량 버스를 타고 와서 하려면, 늘 시간이 맞지 않고 시내버스를 타면 멀미를 잘해서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늘 있으면서도 하지를 못했다.

오늘은 나에게도 기회가 온 것이다. 이번에는 하절기라서 시간이 변경된 것 같은데 나와 남편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 내 형편만 생각한다면 늘 오후 7시에 하면 좋을 것 같다. 토요일에는 직장의 일이 조금 일찍 끝날 수 있고 남편과 만나서 오기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오후에 직장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칠순이 넘으신 시어머니의 저녁 진지를 이르게 차려 드렸다. 그러자니 자연히 청소 시간에 늦을까봐 마음이 급했다. 허둥대면서 반찬을 만들다가 손가락을 조금 다쳐서 밴드를 붙이고 고무로 만든 골무를 꼈다. 그렇게 서둘러 하고 왔으나 조금 지각을 했던 것이다. 그래도 나는 마음이 뿌듯하다. 나도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 중에 들기 때문이다. 좁쌀알 하나 만큼이라도 내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이 기쁘다.

나는 하나님께 하듯이, 또 마음에 끼인 때를 닦아 내듯이 성경 받침대의 모서리며 의자의 구석에 낀 먼지를 공을 들여 열심히 닦아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여기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도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했다. 또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나 아이들을 키우는 일, 일터에서의 일들을 성심껏 하기로 다짐했다.

청소를 하면서 보니 우리 구역식구들이 제법 많이 왔다. 구역이 교회와 멀어서 어려울 텐데 거의 모두 참여한 것 같다. 돌박이 아기까지 데리고 나온 식구도 있고,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식구도 있다. 모두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동지들 같았다.

장로님들께서도 진공 청소기로 대걸레질로 수고하시고, 전도사님은 직접 걸레를 들고 의자를 닦고 목사님께서 손수 빗자루를 들고 복도를 쓸으셨다. 남편은 웃통을 벗고서 진공청소기의 줄을 들어주며 보조를 하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낸다. 나도 반가워 손을 흔들어 보냈다. 구역장님은 진공청소기를 등에 메고 청소를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셨다. "구역장님! 청소기 멘 것이 아주 잘 어울리네요"하고 우스개 소리를 하니 "그렇습니까? 하하하"

여럿이서 즐거이 일하니 청소는 금방 끝이 났다. 처음 참여한 성전 청소의 소감은 한 마디로 레크레이션이었다. 몸은 조금 힘들지만 마음이 뿌듯하고 즐겁다. 내일은 더욱 복되고 기쁜 주일이 될 것 같다. 기회가 오면 또 참여하고 싶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에서는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다 함께 웃고,
힘든 일도 다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원고를 기다립니다.

신앙 클리닉

Q.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자녀가 10대 초반이 되면서 신앙 자체에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찬양과 성경 이야기를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대중가요와 컴퓨터가 주된 관심사가 되었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런 생각으로 마지 못해 엄마 아빠를 따라 대예배에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는 1년 이상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의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A.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은 계속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육체적 성장만이 아닙니다. 지적 성장도 포함됩니다. 초등학교 때 알고 있던 신앙 지식과 확신이 중학교 때에는 다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에 가서 다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의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는 의심 그 자체보다 의심이 신앙에 성장을 가져오는 동기가 되면 됩니다. 요즘 학생들로서 대중가요, 컴퓨터에 관심이 없으면 정상이 아닙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당분간 대예배에만 참석하는 것이 본인이 좋다고 하면 그대로 놔두어도 됩니다.

좋은 신앙교육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범입니다. 쉬지 말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예절

신앙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다. 나는 양손에 짐을 든 채,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그 앞으로 갔다. 문은 열려 있었고 어떤 아저씨가 안에 있었다. 그분은 내가 탈 때까지 기다려 주었고, 내게 몇 층을 가느냐고 물었다. 7층을 간다고 하자, 7층을 눌러 주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는 5층에 섰고, 문이 열리자 그 분은 내리면서, 닫힘 버튼을 눌러 주었다. 갑자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버튼을 다시 누르지 않아도 되도록 나에 대한 배려였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을 좀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특히 주일 예배 시간에 먼저 오시는 분들이 좌석의 중앙부터 앉으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헤매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것은 임목사님께서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이다. 그러나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다. 노약자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안쪽부터 채운다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사람의 앞을 지나가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좌석은 뒷자리가 차면 사람은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어느 모임이든지 되는 모임은 앞자리부터 좌석이 차지만, 잘 되지 않는 모임은 뒷자석에만 앉아 구경꾼의 역할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주일 저녁에도 앞자리 중앙부터 앉는다면, 좀 늦게 오시는 분이 당황하지도 않을 것이고,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불편함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이 늘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조금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훨씬 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교회소식

2000 여름수련회 마쳐

2000 교회학교 및 장년부 여름수련회(8.16~18 광릉수목원 세미나하우스)가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식 목사 사임

김성식 목사님이 미국 유학차 8월 27일 자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기고

정말 안타까운 이산가족

최상용 안수집사(30구역)

반세기 만에 이산가족이 만나서 껴안고 우는 모습을 TV로 지켜보면서 눈물 없이 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것이다.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이북 출신인 신사분은 거의 목을 놓고 우셔서 위로의 말을 드리면서 물었다.

"이번에 선생님께서도 신청을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그분은 이내 심각해지시더니 "저에는 없고 사촌누님과 조카들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꺼내셨다.

"부모 형제들은 여기 다 내려오셨는데 부모님께선 연로하셔서 돌아가셨고 형제 중 남동생은 하나 있는데 반목해서 못 본 지가 10년이 넘었다네."

"친형제끼리도 전화 한 통만 걸면 연락될 장소에 있어도 못 보는데, 50년 동안 떨어져 지낸 손 누님과 조카는 만나 무얼 해?"

그렇다. 현재 남쪽으로 갈라져 보고 싶어도 못보는 부모형제는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 안타까운 이산가족은 천문학적 비용도, 여러 골치 아픈 협상도 필요 없이 저녁 식탁에 수저 몇 개 더 놓는 수고로 만날 수 있는 이 남쪽 땅에 수없이 많은 친족들이다.

물론 그 많은 분들 말처럼 "다시 만나는 것이 쉬었으면 왜 안 그러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어떤 국민인가? 한때 우리에게 비수를 겨누었던 비전향 장기수도, 그들이 자신 언론에서 우리를 위한 독립투사나 된 것처럼 비추어진다 해도 더 큰 화해를 위해 묵시로 용서하는 우리가 아닌가. 그렇다면 무슨 이유가 반목하게 했든지간에 우리도 우리 피붙이를 용서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용서는 각자의 죄를 드러내 놓음을 전제로 한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도 이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자기 죄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과거의 철저한 규명 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용서는 기대하기 힘들다. 문제는 다시 만날 때 서로 상대방 잘못만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각자 자기 잘못만을 용서 받겠다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비은혜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면 해결할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면 해볼 만한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그 신사분도 팔순에 가깝고 몸은 병들어 있다. 그러니 다음 주일 예배 전까지라면 너무 빠를까!

시

어머니

허형철 성도(70구역)

어머니는 초가집
초가집은 어머니

황금같은 지붕
이제 잿빛으로 삭아도
앞집 기와집 뒷집 양옥집에
하나 부끄럽지 않으시다.

하얗게 말라가는 툇마루
흠뻑 적셔도 좋으련만
서러운 장마,
회반죽 뚝뚝 떨어져도
아프지도 아깝지도 않으시다.

내뭇같은 박 넝쿨
한없이 힘겨워 자꾸만 낮아지시는데
굽어진 어머니의 애절한 기도가
저녁 연기되어 올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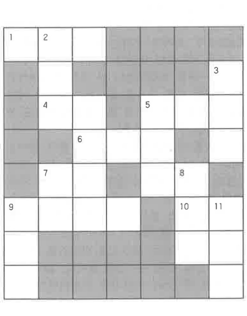
기도문

기도문

이민우 집사(34구역)

주님
바라옵건대
나의 빈한함으로 인해 당신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내게 없는 것을 행여 당신께 구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나에게 없는 것을 헤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신이 내게 주신 이 많은 것들을 헤아리고
그로 인해 항상 기뻐하게 하소서.
내게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음을
내게 밤이면 몸을 뉘일 수 있는 작은 방이 있음을
때가 되면 내게 일용할 양식이 있음을 기꺼워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바라옵건대
내가 행여 당신께 보다 편한 잠자리와
보다 풍성한 식탁과 보다 많은 재물을 구하지 않게 하소서.
가진 자들을 미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게 하여 주소서.
내게 당신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 그들 앞에서 떳떳하게 하여 주소서.
그들이 가진 것을 내게도 달라고 당신께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를 허락하시어
가난한 자들과 무거운 짐진 자들과 수고하는 자들과
이 세상의 온갖 불쌍한 것들과 죽어 가는 것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 땅과 저 하늘과 내 이웃과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퍼즐



가로열쇠
1. 요한의 형제. '우레의 아들'
4.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사 6)
5. 드보라가 무기없이 시스라의 군대를 멸한 곳(삿 5)
6. 아합왕의 아버지
7. 납달리의 아들(창 46)
9.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 선지자
10. 예수님이 처음 이적을 행하신 곳

세로열쇠
2. 이스라엘 백성의 귀향을 허락한 바사왕(대하 36)
3. 목회서신 중 하나. 바울이 그레데 섬에 사는 헬라인 교역자에게 보낸 편지
5.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물이 나온 곳(출 17)
8. 솔로몬이 지은 사랑의 노래책
9.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11. '일곱 아들 보다 귀한 자부'의 시어머니

정답을 아시는 분은 10월 8일까지 교회사무실로 내주십시오.
보내신 분 가운데 세 분께 예쁜 선물을 드립니다. (문의 416-5181)